

마키에

마키에는 칠기에 바른 옷이 마르기 전에 금가루 등의 금속가루를 뿌려 문양을 그리는 일본 특유의 기법입니다. 또, 장식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작품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본 칠기 중 가장 보편적인 장식기법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마키에가 사용된 칠기가 등장한 것은 8세기경부터입니다. 그 후 마키에는 수백 년에 걸쳐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키에가 적용된 물품은 병풍이나 불단 같은 대형 장식품부터 머리장식, 필통 등의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고가의 재료와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키에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은 부유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 부유한 상인계층이 대두되면서 평민들도 마키에 장인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객층의 등장으로 마키에는 예술성과 표현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19세기 중반 에도 막부는 국제무역상의 많은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품의 수출과 해외와의 예술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키에는 단순히 응용미술로서의 역할을 넘어 창의적인 예술로 발전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키에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칠기는 모두 옷나무 수액인 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발라 만듭니다. 3가지 중 하나인 도기다시마키에는 그림을 그린 옷 위에 금가루를 뿌린 후 전체를 옷으로 덧칠하고, 옷이 굳으면 주변 옷칠 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표면을 갈아내어 문양을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한편 히라마키에는 붓을 사용해 그릇에 옷으로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금속가루를 뿌립니다. 금속가루는 옷이 아직 응고되지 않은 부분에만 부착됩니다. 옷 양이 적기 때문에 문양은 거의 평탄하게 완성됩니다. 이에 반해 다카마키에는 문양을 의도적으로 돌출시켜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매끄러운 표면의 돌출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탄가루나 점토가루를 섞은 옷을 여러 겹 덧바릅니다. 문양이 고부조처럼 튀어나온 형태가 되면 그 위에 금속가루를 뿌립니다.

문양의 그리데이션은 금과 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속과 합금을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을 섞은 아오킨(청금)은 밝은 금색을 띠니다. 금과 구리를 섞은 샤쿠도(적동)는 약간 붉은빛을 띤 갈색인데, 시간이 지나면 흑자색의 녹청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크기의 금속가루를 사용하면 완성된 작품의 질감과 광택이 달라집니다.

마키에에 사용되는 옷이나 금속가루는 매우 고가일 뿐만 아니라 쉽게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 장인들은 전용 도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도구는 ‘분통’과 ‘쓰메반’입니다. 분통은 가루를 균일하게 뿌릴 수 있도록 대나무 통 한쪽에 비단이나 거즈를 씌운 도구입니다.

쓰메반은 엄지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작은 팔레트로 액체 옷칠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문양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은 가루를 털어내기 위한 모봉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공예품에서는 마키에와 다른 기법을 병행한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루 대신 금속판을 잘라 사용하는 '효문(平文)', 부순 달걀껍데기를 장식에 사용하는 '란카쿠(卵殼)', 진주모패를 사용하는 '나전(螺鈿)', 금가루나 금박을 채워 넣는 '침금(沈金)' 등이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결합한 칠기를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키에는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시카와현 출신의 마쓰다 곤로쿠(1896~1986)가 마키에 분야 최초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시카와현에서는 1982년에 오바 쇼교(1916~2012), 1985년에 테라이 나오지(1912~1998), 2010년에 나카노 고이치(1947~)가 각각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